**2013210061 채윤병 01098983621**

9살 때, 용달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. 쇄골에 가볍게 금이 간 정도였지만 한 달간 입원을 했었고 병실 주위에는 내 또래는 없고 온통 아주머니들뿐이었다.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탔었고 벽에는 동전을 넣고 보는 TV도 붙어 있었지만 아주머니들 차지였다.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보던 것 중에서 내게 흥미를 이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퇴근하고 찾아오신 부모님께 여쭤보니 월드컵이라고 말씀하셨다.

온 국민이 빨간 물결을 일으키며 목청 터지게 소리지르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. 가끔 TV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복습이 됬는지 그 때 기억이 생생하다. 그 해에는 음악, 게임, 교육까지 축구가 중심이었고 나도 그 시절 축구에 빠진 사람 중 하나였다. 어렸을 때는 “대~한 민국” 하며 박수를 치던 그 여름의 열기와 함성이 그저 즐거웠다. 월드컵을 한국이 월드컵을 주최했다는 것, 그리고 한국이 그 대회에서 4강을 했다는 것, 그리고 골을 넣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도 그 자체로 너무 즐거웠다. 심지어 축구의 룰도 정확히 몰랐는데도 말이다. 그저 사람들이 골 하나에 열광하고 웃고 또 우는 것을 보며 나도 그 감정에 따라 전이됐었던 기억이 있다.

월드컵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막을 내렸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월드컵을 열었다. 물론 나도 퇴원 한 뒤 뒤늦게 그 가운데에 있었다. 헛발질을 하고 허공에 헤딩도 하고 뛰다가 넘어지면서도 그저 그게 좋았다.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했다. 그래서 축구에 대해 공부하고 또 연습하며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다. 그 친구들과는 아직까지도 만나기 때문에 축구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. 그 친구들도 나처럼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한다.

유년시절은 까마득하게 느껴진다. 하지만 지금 내 주위를 보면 유년시절이 느껴진다. 사진을 봐도, 봤던 책을 다시 봐도,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도, 그리고 영화를 다시 볼 때도 유년시절의 나를 희미하게 느낄 수 있다. 누군가 내가 축구를 할 때도 그렇다고 하면 비웃을 지도 모른다. 하지만 나는 축구를 하면 유년시절에 했던 때를 떠올리곤 한다. 그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즐거웠다.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즐거웠다.